

[중남미]

페루-칠레, 아시아 중심 수출 시장 활성화 위해 공동 계획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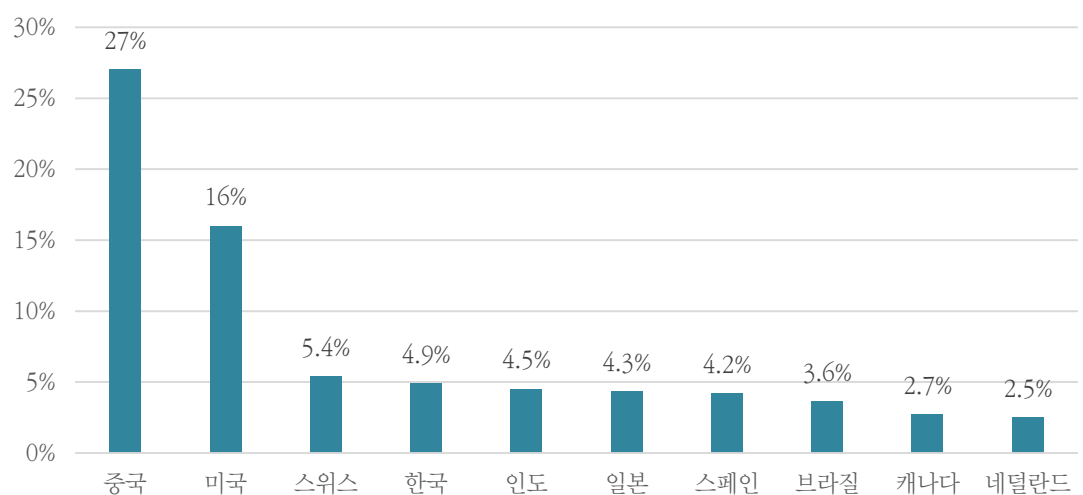


페루와 칠레가 주요 농산물과 관련한 시장 확대 합동 계획을 발표했다. 아시아권 국가들에 대한 수출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아시아를 중심으로 수출 시장 활성화 계획을 진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합작 계획을 통해 양국은 주요 상위 수출 품목인 과일류 등의 농산품을 중심으로 수출 시장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을 확장하여 멕시코, 콜롬비아까지 포함한 농산물 상업 지구 형성 노력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페루-칠레, 아시아권역 국가 수출 4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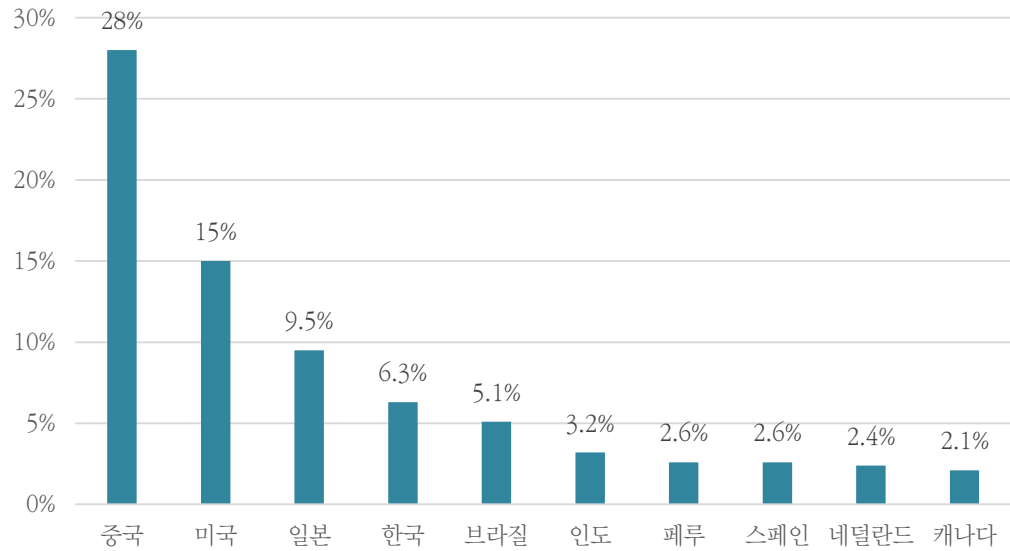
페루와 칠레가 수출시장, 특히 아시아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합작 계획을 발표했다. 아시아권 국가들이 주요 수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고려한 계획이다. 페루 구스타보 모스타호(Gustavo Mostajo) 농업관계부 장관은 “주요 시장이 미국과 유럽이긴 하지만, 아시아 시장에서의 성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 2017년 기준 페루의 상위 10개 수출국가 중 아시아권역 4개국(중국, 한국, 인도, 일본)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칠레 역시 상위 10개 수출국가 중 아시아권역 4개국(중국, 한국, 인도, 일본)이 수출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페루 국가별 수출 규모〉



(출처: Trading Economics)

〈2017년 칠레 국가별 수출 규모〉



(출처: Trading Economics)

과일류 중심 농산물 수출 확대 및 상업 지구 형성 계획

페루와 칠레는 과일 등의 농작물을 중심으로 아시아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과일류 제품은 양국 모두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로, 페루 구스타보 모스타호 농업관계부 장관은 “양국이 공동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요 제품은 아보카도, 포도, 감귤 등의 과일류가 있다,”고 언급하며 칠레와 협력하여 품질 향상 및 위생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칠레 안토니오 워커 프리에토(Antonio Walker Prieto) 농무부 장관 역시 페루와의 협력을 통해 수출 시장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향후 양질의 농산물을 제공하는 상업 지구를 형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토니오 워커 프리에토 장관은 멕시코와 콜롬비아와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향후 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 국가들과 아시아 간의 과일 등 농작물 교역 규모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정리: EMERiCs, 자료감수: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출처

- Santiago Times, Chile and Peru join hands to promote agricultural products in Asia, 2019.02.28
- Trading Economics, Peru Exports By Country
- Trading Economics, Chile Exports By Country